

진도군, '울금산업 특구' 지정 재도약 준비

내년부터 5년간 국비 83억원 등 총사업비 171억원 투입 기반시설 확충·울금 6차 산업화 등 8개 사업 적극 추진

진도군이 최근 '울금산업 특구'로 특별 지정되는 등 울금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 주관으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제4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울금산업 특구로 특별지정됐다.

군은 이번 특구 지정에 맞춰 2019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울금기반시설 확충, 울금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울금 6차산업화 및 홍보강화 등 3개 분야 8개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83억9000만원, 도비 3억1000만원, 군비 77억5000만원, 민간자본 6억5000만원, 총 사업비 171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고품질의 울금 최대 주산지로서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해 주민공청회·지방의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진도 울금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울금, 가공 상품 등에 '울금산업특구 생산품'이란 브랜드를 사용하여 제조식품 표시기준·영업시간·영업행위를 달리 적용하거나 특허출원 시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 심사 등 특구법의 규제 특례로 유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이종진 진도군수는 "이번 진도 울금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유통구조개선과 홍보마케팅 등을 강화할 수 있음은 물론, 6차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해 울금산업 재도약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전국 울금 생산량의 70%



진도군 의신면 울금 밭에서 재배 농민들이 잘 자란 울금 수확에 한창이다. <진도군 제공>

이상을 재배하는 울금 주산지이다. 울금은 삼·폐·간에 작용해 몸의 기(氣) 순환을 촉진시켜 응결된 것을 풀어주며 혈액을 원활하게 해 어혈을 없애는 효능이 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진도군,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컨설팅 실시

진도군은 최근 지역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진도군 메디컬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컨설팅은 ▲고병원성 AI 발생원인과 특성 ▲오리농가 차단방역 매뉴얼(농장 출입 절차, 축사 출입 절차, 축사 정결관리) ▲달라진 제도(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 등에 대해 종합교육을 실시했다.<사진>

또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오리농가 AI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를 안내하면서 생석회를 농장 주변 30cm 간격, 두께 2-3cm로 살포해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고병원성 AI 발생 차단을 위해 관내 방역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해 방사 사육·잔반 급여 금지 홍보, 전화예찰과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중이다.

또 생석회, 소독약품 등을 긴급 공급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완도군, 해조류센터 그림 전시 문화·예술 공존 공간으로 조성

완도군이 국제해조류박람회 주제관으로 활용된 해조류센터 건물 벽면에 서화 작품을 전시하는 등 방문객을 유도에 적극 나섰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해양치유 갤러리에는 지역 초·중학생들이 장보고 백일장 대회에서 완도의 자연과 인물을 주제로 그린 작품 42점을 전시하고 있다.

군은 추후 지역 학생들은 물론 타 지역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조류센터 옥상 정원에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씩 초화류를 식재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비용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여론에 따라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내년에는 옥상 정원에 초화류 식재를 중단하고 계단 폭포를 설치할 계획이다.



완도군이 국제해조류박람회 주제관으로 활용된 해조류센터 건물 벽면에 서화 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끈다. <완도군 제공>

해남군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인기

6개 마을 골 관절 질환 예방교실 운영, 주민 출석률 96% 달해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주민건강 지킴이로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보건소는 올해 한의약 골 관절 질환 예방교실 등 3개 분야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6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약 골 관절 질환 예방교실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경로당을 직접 방문 운영한 결과 출석률 96%로 적극적인 참여

40-60세 경년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경년기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상태 검사, 명상, 안마도인, 기공체조, 산림치유, 한의요법 치료와 건강 소식지 배부 등 다양한 내용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특색 있는 내용과 맞춤형 서비스로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해남=박희석 기자 dia@

해남군 '자원봉사 시간 환산금 기부사업' 국무총리상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선정

해남군의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사업이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행정 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사진>

해남군은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에 선정된 데 이어 국무총리상까지 받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최초로 2016년부터 시행된 해남군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해 기부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에 46개 단체와 개인 19명이 참여, 총 4만 630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환산금으로 재기부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생계 지원 등에 재기부했으며 총액은 1760만원에 달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완도군, 내년 문화체육시설 SOC사업 국비 6억 확보

완도군은 최근 내년도 문화체육시설 SOC사업을 위해 국비 6억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비를 포함, 총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완도문화원 확충과 금일·노화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금당·생일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완도문화원은 지난 2014년 2층으로 건립했으나 문화 공간이 협소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또 금일읍과 노화읍의 공공도서관도 신축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했다.

이번 국비 확보로 완도지역 문화체육 시설이 대폭 확충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완도군 관계자는 "정부의 문화 분야 SOC사업 공모 방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국비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욕기형사용

해당심속속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적완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